

2014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결과보고

■ **일 정** : 2014. 12. 8(월) ~ 12. 12(금)

■ **방 법** : 서면자료 검토 및 논의

- 자료 제공 : 위원에게 서면자료 및 전자파일 자료 제공
- 의견 제출 : 자료 검토결과 문서 또는 이메일 제출
- 의견 반영 : 위원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계획 수립

■ **위원구성** : 15명(당연직 6명, 위촉직 9명)

■ **안 건** : 자살예방사업 및 2015년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

1.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
2. 자살예방사업 협력 시스템의 실질적·지속적 구동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장애요인
3. 2015년 사업방향(중점분야 : 자살고위험군 관리)에 대한 의견
 - 마을단위(주민참여)의 안부나눔을 통한 자살예방사업
 - 중·장년층(남성) 자살예방의 효율적 추진 방법

■ **의견제출** : 6명

연번	소속	직책	성명
1	서울백병원	원장	최석구
2	서울중부경찰서	서장	윤소식
3	서울남대문경찰서	서장	허 찬
4	중부소방서	서장	강성동
5	중구 기독교 교구협의회	회장	곽충환
6	약수노인종합복지관	관장	이금영

■ 의견요약

1.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

-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재시도자 저감대책 수립
 - 독거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위험지역 개선
 -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안부나눔, 전문적인 밀착관리
 - 자살위험군의 분석과 분류에 따른 맞춤형 지원
-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
-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’ 재해석

2. 자살예방사업 협력 시스템의 실질적·지속적 구동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장애요인

기관	역 할	장애요인
병원	○ 고위험군의 정기적인 상담 및 투약 ○ 보건요원 교육 및 홍보에 적극 참여	
경찰서	○ 112 신고 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관 기관간 협업	○ 자살 고위험자 리스트 미확보 ○ 선제적 예방관리 시스템 부재 ○ 위험지역 조기방지 위한 예산 부족
소방서	○ 위기관련 콜센터 상담원 자살예방 교육 ○ 우수직원수범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	○ 자살시도자 상담 기술 부족 ○ 인센티브 미비
교회	○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역할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	○ 자살 위험군 리스트 미확보
복지관	○ 전문분야별 유관기관간 협력	○ 주 사례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필요

3. 2015년 사업방향(중점분야 : 자살고위험군 관리)에 대한 의견

3-1 마을단위(주민참여)의 안부나눔을 통한 자살예방사업

- 마을 단위 노인회 활성화, 자원봉사자를 통한 안부나눔
- 동중심(다산동)의 교회 모임을 통해 안부나눔 방안 모색
- 안부나눔 인적자원 확대 및 책임대상 관리 방안 마련
- 복지기관의 안부확인사업과 연계
- 고위험군 발견시 전문인력 및 기관 즉시연계 시스템 구축

3-2 중 · 장년층(남성) 자살예방의 효율적 추진 방법

- 실질적인 지원 및 자립, 재활을 위한 교육 필요
- 경찰서에서 시행중인 내주민 알아가기 프로그램과 연계
- 생명지킴이 양성 활성화 및 교회단위에서 교육의 장 마련
-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
제출의견

1.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

연번	위원명	의견
1	최석구	○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집중관리 필요 ○ “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”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재해석 필요
2	윤소식	○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
3	허찬	○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경찰 출장 강의 필요 ○ 자살예방사업 관련 우리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 예산 지원
4	강성동	○ 자살 재시도자(자살고위험군) 저감대책 수립 -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안부나눔 체제, 상담을 통한 주기적 관찰 - 고위험군 자살예방 전문상담센터에서 밀착관리 ○ 생명존중 문화 확산 노력 : 교육, 공연, 캠페인 등
5	곽충환	○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 ○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 생명조중을 많은 사람에게 듣도록하여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함이 중요한 과제
6	이금영	○ 우울증, 빈곤층, 가족해체(사별, 이혼) 등 다양한 자살 위험군에 대한 분석과 위험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

2. 자살예방사업 협력 시스템의 실질적·지속적 구동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장애요인

연번	위원명	의견
1	최석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위험군이 분류되면, 정기적인 상담 및 투약 실시 : 백병원 ○ 보건요원의 교육과 전구민 홍보에 적극 참여
2	윤소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살의·시도자 112신고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○ 자살위험 취약 계층인 사회적 약자(독거노인, 여성, 장애인) 발견시 지자체 유관기관과 공동협업 ○ 주거환경 개선, 기초수급자 선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협력시스템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노력 ○ 자살 고위험자 리스트 미확보 및 선제적 예방관리 시스템 부재로 112신고 출동시 너무 늦게 개입되는 경우 많음
3	허 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험지역 및 사각지대 발견시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시 예산 지원 필요
4	강성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관련 콜센터 상담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살시도자 상담 기술 및 신속 출동 조치 ○ 자살예방사업 우수직원·수범사례 발굴, 인센티브 제공
5	곽충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회는 인적, 물적자원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곳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지속 - 한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 협의체로 형성 ○ 자살위험군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동적 역할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에서 자살위험군 정보 제공
6	이금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내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의 중복서비스와 주사례 관리 역할의 부재 ○ 자살예방사업 협력에 있어 예방사업기관, 자살위험군 관리기관 등 분야별 전문사업을 진행 ○ 위험군 집중 사례관리에 있어 주사례 기관을 중심으로 타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진행방식의 통합사례관리 추진 필요

3. 2015년 사업방향(중점분야 : 자살고위험군 관리)에 대한 의견

3-1 마을단위(주민참여)의 안부나눔을 통한 자살예방사업

연번	위원명	의견
1	최석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을 단위의 노인회를 활성화하여 서로 안부 나눔 ○ 노인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소일거리를 제공 ○ 소식이 뜸한 노인 가정방문
2	윤소식	-
3	허 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요시 봉사활동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탐문, 지원활동 실시 계획 중
4	강성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빈곤퇴치사업과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○ 안부나눔 인적자원 확대 및 책임대상 관리 방안 마련
5	곽충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산동 소재 교회 모임(7개교회)에서 다산동의 자살예방을 위한 안부나눔 방안 모색
6	이금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거노인전수조사 사업 진행시 자살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심리·정서 분석 척도를 추가 ○ 고위험군 발견시 전문인력 및 기관을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- 통합사례회의 정례화, 실무자 전문교육 ○ 일자리 사업, 지역주민을 활용한 정기적 안부확인 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복멘토링센터 사업으로 텔레 마케터 일자리 참여자가 독거어르신 대상 정기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 시행

3-2 중·장년층(남성) 자살예방의 효율적 추진 방법

연번	위원명	의견
1	최석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질적인 지원 및 자립, 재활을 위한 교육 필요
2	윤소식	-
3	허 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주민 알아가기 112운동과 연계
4	강성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가정 상담센터 운영 홍보 강화 ○ 알콜 상담센터 내담자 중 자살고위험군 적극 관리
5	곽충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장 중심으로 교회단위의 교육의 장 마련 ○ 생명지킴이 양성 활성화를 통해 자살예방
6	이금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상생활 능력향상 및 경제적 지원과 자립 프로그램 병행 ○ 은퇴남성, 독거남성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

향후계획

- 2014. 12. : 결과보고서 각 기관(위원) 발송
- 2015. 1. : 의견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 후 기관 간 협조공문 발송
- 2015. 2. : 유관기관 간담회 및 기관별 정기적 방문 회의